

한동훈 “본투표서 승부본다”... 이재명 “윤정권에 레드카드”

여야, 투표 독려 총력전

국민의 힘 “샤이 보수 결집 기대” 민주당 “눈물 쇼는 이제 끝났다”

여야가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4·10 총선 사전투표율을 놓고 각각 ‘거대 야당 심판’ ‘정권심판’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면서 본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거일을 앞둔 8일, 본 투표에서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상대에 대한 비판 공세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면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4·10 총선 사전투표율에 대해 “거대 야당을 심판하려는 민심이 결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화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4년간 ‘입법 독재’와 ‘방탄 국회’로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180석 거대 야당을 심판하고, 범죄자들과 중북주의자들, 위선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기세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민낯은 부도덕함과 위선 그 자체였다. 이제 법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들이 투표로 공정과 상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의 진보당 일부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도 YTN 라디오에 출연, “사전투표가 국민에게 익숙해진 측면이 있다”며 “사전투표에 불신이 있던 보수 진영에서 많이 결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샤이 보수’ 결집에 기대를 걸고, 남은 이틀간 총선일 본투표 참여 독려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기도 이전 유세에서 “저희는 그동안 사전투표 잘 안 해왔다. 이번에 열심히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는 분들은 본투표에서 승부를 봤다”며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투표했다면 주위에 알려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충북 정주 유세에서도 “판세 분석을 내부적으로 보면 경합하던 곳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분들 대부분은 본투표에 나서기 때문에 진짜 승부는 이제 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손맛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 원장은 총선 하루 전날 9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본투표 참여 호소’ 기자회견을 여는 등 본투표에서 보수층 결집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높은 사전투표율을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성난 민심으로 해석하며, 본투표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에서 “국정 실패에 대해 우리 주권자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면서 본 투표에서도 정부여당 심판을 당부했다.

이어 선거 막판 국민의힘의 ‘음소’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의 ‘눈물 쇼’는 유혹기간이 선거 전일까지”라면서 본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서울 동대문갑 안구백 후보 지지 유세에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이번에 옐로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복하면 언젠가는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 모른다”면서 “4월10일에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카드”라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또 고개 드는 ‘사전투표 조작설’... 선관위 “사실무근” 일축

지난 5~6일 치러진 4·10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조작설’ 주장이 제기된 서울 은평구선관위 관의사전투표 투표함 투입 영상을 올렸다. 황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일 참매 결과가 나오자 대표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4·15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약 10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선 선관위 직원과 여야 정당추천위원 2명이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에 우편으로 접수한 관의사전투표(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황 전 대표는 “어떻게 한 지역구 주민들의 관의사전투표자 수가 저렇게나 많을 수 있느냐”며 “얼마나 많길래 새벽 3시부터 1시간 이상이나 관의사전투표자를 투입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은평구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도 선거 관리에 문제가 매우 많았던 바로 그곳이다.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거

론했다.

황 전 대표는 또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선 투표자 수와 선관위 시스템상 투표자 수가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사전투표수 불풀리기’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외에도 투표함 봉인지 색깔이 기존 파란색에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짙은 회색으로 바뀐 점, 더불어민주당이 예측한 사전투표 투표율과 실제 사전투표율이 비슷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가가호호공명선거대안당 민경욱 공동대표도 황 전 대표와 같은 논리로 사전투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를 지냈다.

민 공동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투표참관인들이 계수한 사전투표자 수보다 선관위 모니터에 집계된 수가 무려 40% 이상 불풀려져 있는 것이 도처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선관위는 은평구선관위 영상에 대해 국민의힘,

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 2명이 입회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 불풀리기’ 의혹은 참관인들의 계수가 잘못된 것이며, 의혹이 제기된 투표소를 확인한 결과 보관 중인 ‘신분증 이미지’를 통해 선관위 시스템 집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며 총 126건 선거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종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민 공동대표가 제기한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혐장 검증, 재검표 등 검증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한 황 전 대표와 민 공동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힘 서울 후보들 “회초리 들되 일할 최소 여건 달라”

국민의힘 4·10 총선 서울 동부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8일 “윤석열 정부에 회초리를 드시오”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강동을 이재영·종광을 이승환·도봉갑 김재섭 후보는 총선일을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국정운영, 여당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치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실망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자들의 면면을 봐달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이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몰아주게 되면 앞으로 그들의 범죄 혐의는 더 이상 물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고 했다.

또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심판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 소꼴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과살우’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범죄혐의자 체포를 막는 방탄 국회였다면, 22대 국회는 아예 범죄를 세타하는 범죄세타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48시간 동안 무박 유세”

4·10 총선 경기 화성읍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8일 “48시간 동안 무박 유세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스타그램에 이같이 적으며 자전거를 타는 사진을 게시했다.

전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정말 강행군하고 있다”

며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대표가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게 더 싫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화성읍은 이 대표와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한정민 후보,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현대차 사장 출신의 공영훈 후보가 출마해 3자 구도가 형성됐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

표의 48시간 무박 유세에 대해 “선거 막판에 이런 것 하면 절대 안 된다”며 “왜? 지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바보 같은 자기 학대다. 역시 이번에도 틀렸군”이라고 비꼬았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설치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엔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발전사업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엔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